

포스트모더니즘?? 이게 뭐예요?? 🐼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20세기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탈근대주의" 혹은 "후기근대주의"라고 불리는 주요한 철학적 사조(思潮)중의 하나입니다. 말이 철학적 사조이지 사실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사상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체계입니다. 처음에는 서구에서 문학과 미술 등의 분야에서 나타났지만 지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찰 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체계는 앞으로도 30-40년은 너끈히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복잡하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기서도 특히 십대들에게 적용하여 기성질서와 대립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문화적 변혁에 접점을 찾아볼까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성 중 첫째로는 서로의 '관계성(relationship)' 보다는 '나 자신'에게 삶의 안정감을 두고 집중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성에 기초를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이고 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들은 항상 영두에 둡니다. 그래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쉽게 나서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 절대적 가치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고생을 하는 것일지라도, 어려움과 부담이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거는 세대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복음적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볼 때 전 세대(世代)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적 삶에 대해서 물, 불을 가리지 않는 특질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앞뒤보고 잔머리 굴려가며 인생을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졸으니까 그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도를 가지고 행하는 사역은 지금과 같이 주위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식어진 이 세대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나 모임에서 레크레이션 좋아한다고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 일색으로 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원복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기존의 가족공동체에서 지켜져 내려왔던 믿음의 유형이나 교회전통의 신앙의 행태를 수용하고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꼭 찬송 한 장하고 아빠가 성경읽고 말씀전하고 서로 통성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정례화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세대들은 이것을 금방 싫증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왜 꼭 예배 때마다 저렇게 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을 안하고 다른 복음송을 부르고 마치면 안되나?' '말씀은 꼭 아빠가 읽고 설교(형식을 빌어서) 해야 하나?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본문을 읽고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 안될까?' '가끔씩은 뮤지컬식

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면 안되나?' 등등

지금의 십대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나 신앙의 스타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 부모나 선생님들은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라든지 '애네들이 영성과 경건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들과의 만남의 다리는 영영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면 이들의 영성이 밑바닥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의 10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괴상한 철학이 전염시킨 사고방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병을 앓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타하기 이전에 가정예배의 분위기와 방법을 다채롭게 변화시켜 보십시오. 아이들은 우리시대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방법으로 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방법 안에서 한 주(主)와 한 성령을 호흡할 수 있다는 특권을 날마다 맛볼 수 있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들의 세번째 특징은 자기의 개성을 극대화시키며 이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인정하기 힘든 좀 유달리 튀어 보이는 옷을 입고 오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당장 구설수와 입방아질을 당하기 일쑤였고 본인도 이런 면을 매우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들은 오히려 남들과 '다른 것', '특별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어필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너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입고 먹는 것도 비슷해야 친구야"라는 관점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와 달라 보이는 또래를 더 인정하고 이상화하고 그도 또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반면에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개성이 강조되면 창의성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능력들이 개발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experts)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근대주의나 유교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이 저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잘 할 수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바람만 잡고 분위기만 잡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한국교회의 분위기와 성장위에 각 분야의 문화영역을 기독교적으로 힘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적인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집단주의에 민감해져있는 세대들보다도 지금의 세대들이 덜 부담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을 먹고 자라나는 10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들을 발견하기 시작 한다면 이들은 이 세대의 각 분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무서운 세대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청소년을 위한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